

교육혁신원 학생교육혁신단 BOO스터 8기 소개

학생교육혁신단 BOO스터는 교육혁신원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및 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소통 채널 관리, 정기 회의 등을 참여하며 교육혁신원의 교내 이벤트,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학생 참여 독려와 HUFSAbility 활용법 홍보 및 시스템 운영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송은 서울캠퍼스 팀장

스칸디나비아어과 21



의미 있는 한 학기를 보내기 위해 덩석 시작한 BOO스터 활동은 제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8기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의한 시간, 새어 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촬영했던 시간, 노트북을 붙잡고 깡깡했던 편집 시간까지 지금 생각해 보면 즐거웠던 기억뿐입니다. 부원들 개개인의 능력 또한 뛰어나서 배울 점이 많았는데 캠퍼스장으로서 리더 역할을 맡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뒤에서 고생해 주시는 분들을 보며 HUFSAbility의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여러분, 혁신원 인스타그램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알찬 정보 쏙쏙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조환희 글로벌캠퍼스 팀장

생명공학과 21



이번 학기를 BOO스터 8기로 활동하며 저 자신 또한 한층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육혁신원의 의미 있는 활동들과 행사들을 알릴 수 있었기에 매번 큰 뿌듯함을 느꼈고, 콘텐츠를 제작하며 교육혁신원과 HUFSAbility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함께한 BOO스터 8기 부원들과의 소중한 인연이 활동 기간 내내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많은 학우분들이 교육혁신원의 SNS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익한 활동들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어 가신다면 더욱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지원

프랑스응용어문학전공 21



인스타그램을 스크롤 하다 우연히 BOO스터 8기 모집 게시물을 마주했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늘 면접을 두려워해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서 가슴이 벅차오르던 기억이 납니다. 철저한 준비 끝에 BOO스터 활동에 합류하게 되었고, 한국외대 교육혁신원 소속으로 다채로운 홍보 영상을 제작한 경험은 앞으로도 한국외대 학우로서 자부심이자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노력하고 고생해준 소중한 부원 친구들을 만난 것도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저희의 노력이 교육혁신원의 인지도 상승에 조금이나마 기여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교육혁신원의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남예원

스페인어과 21



순간의 선택은 아주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체감한 값진 활동이었습니다. 학기 초, BOO스터 8기에 지원하기로 한 그 선택은 한학기 동안 수많은 경험을 하게 했고, 저를 한층 더 성장시켜주었습니다. 부원 친구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고, 다양한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며 편집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훌륭한 부원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교육혁신원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직접 홍보하고 경험해볼 수 있어서 아주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혁신원과 BOO스터가 제공할 유용할 정보와 재밌는 콘텐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신애

융합인재학부 21



BOO스터 8기에 합류하여 보낸 모든 시간은 저에게 도전과 성장의 연속이었습니다. BOO스터 친구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했던 경험은 그 자체로 큰 배움이 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나 자신을 넘어서는 순간들을 만들어준 BOO스터와 혁신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육혁신원의 멋진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선영

융합인재학부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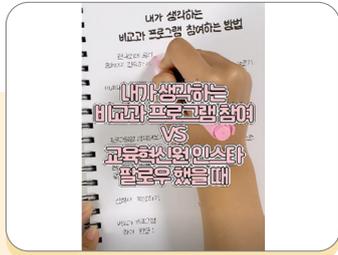


8기 BOO스터 활동을 하면서 스케치 촬영이라는 것에 새롭게 도전해볼 수 있어서 교육혁신원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며 채널 운영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활동했던 BOO스터 친구들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소중한 자산입니다.

학생교육혁신단 BOO스터 8기 활동 내용 소개



BOO스터 8기로 활동하며 인상 깊었던 활동은?



정기적으로 업로드했던 다양한 릴스 콘텐츠가 기억에 남습니다. 유익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혁신원 SNS계정을 최대한 재미있게 홍보하기 위해 고민한 시간이 BOO스터 활동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트렌디하고 적절한 템플릿을 찾기 위해 회의시간 도중에 모두가 릴스를 무한으로 넘기며 탐색하던 순간은 아직도 웃음이 납니다. 부끄럽지만 용기내서 출연해주고 고퀄리티로 편집해준 BOO스터 부원 친구들에게 항상 고맙습니다.



— 김송은



BOO스터 8기 활동을 시작하고 가장 처음으로 참여했던 행사인 학습자설계융합전공 설명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동안 많은 촬영과 편집을 해보았지만, BOO스터 로서는 처음 투입되는 자리였기에 기대되면서도 떨리는 마음이 컸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명회 현장을 생동감 고 활기차게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촬영하고 편집했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학습자설계융합전공 설명회 콘텐츠로 제작한 숏츠가 인스타그램에서 3천회 이상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여 아주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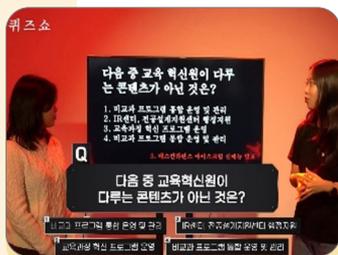
— 남예원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인터뷰 콘텐츠입니다. '해커톤', '튜터링', 'C.C.S', '외전 우수사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수님을 촬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혁신원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대상을 섭외하고, 질문을 기획하며,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성장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백선영



저희의 첫 오리지널 콘텐츠인 '부락퀴즈쇼'를 가장 인상적인 활동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기획 단계부터 촬영, 편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부원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만큼, 모든 부원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대학 생활의 잊지 못할 순간인 가을 대동제를 영상으로 담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혁신원과 퀴즈쇼를 결합한 독창적인 콘텐츠를 통해 저희가 꿈꾸던 '재미있는, 웃음을 주는 콘텐츠'를 처음으로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기에 BOO스터로서 큰 보람을 느꼈고, 제작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에도 끝까지 함께 힘써준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오지원



저는 외전 당시 BOO스터 소개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외전을 맞이하여 BOO스터 8기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과 제작한 콘텐츠들, 그리고 부원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 제작하였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며 BOO스터 8기 부원들 각각의 장점과 포부를 학우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했고 그동안의 활동들이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교육혁신원의 활동들과 우수 활동자들의 발표를 들으며 오는 '외전'에서 제가 제작한 영상으로 행사가 시작되어 더욱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 조환희



저는 혁신원의 SNS계정을 관리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키다리 서포터즈 워크숍, 전공박람회, 가을 대동제 등 혁신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 진행을 보조하며, 실시간으로 현장의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인스타그램 스토리 하이라이트로 공유했던 일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실시간 공유를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행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던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한신애